

외면하고픈 현실... 눈 뜨고 보라는 도발

September 22, 2017 | 노형석 기자



15일부터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폴 매카시 개인전 관람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외면하고픈 현실... 눈 뜨고 보라는 도발

진흙미술 대가 폴 매카시 신작전

이 거장의 손은 망치나 톱처럼 움직인다. 어떤 때 끈끈한 소재도 그의 손길이 닿으면 망가진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몸이 으스러지고 구멍이 뚫린 채 날선 성육과 폭력성의 아이콘으로 변질된다. 고즈넉한 숲속 정원에 놓인 정교한 두 남성 인형은 바지를 내려놓고 미친 듯 자위를 하는 물감을 펼쳐낸다.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비루하고 비참한 세계의 욕망, 혹은 사회의 잔혹성, 폭력성을 그는 보게 만든다. 이런 특출한 개성에 세계 미술계가 열광했다.

성과 폭력성을 화두 삼아 물과 동화, 신화 세계를 난도질하는 작가로 유명세를 탄 미국 거장 폴 매카시(72)가 신작을 들고 한국에서 두번째 개인전을 차렸다. 15일부터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K2, K3 전시장에서 시작한 전시 '컷업, 그리고 실리콘, 여성 우상, 화이트 스노우'는 5년 전 전시 못지않게 그로테스크한 풍경을 펼쳐낸다. 작가 자신의 몸을 뜯 모형을 절단해 생경하게 마구 접붙이고(‘컷오프’ 연작), 땡겨 낚은 백설공주의 머리통에 도료가 흘러내리고 파이프가 목에 꽂힌 참상이 하얀 백색전시장에 깔끔한 조각물처럼 도열해 있다.

폴 매카시는 1960~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한 청장년 시절부터 몸을 활용한 퍼포먼스와 개념미술이 결합된 도발적 작업을 축적해왔다. 2000년대 들어 디즈니 같은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등을 잔혹극의 구도로 뒤엎어 충격을 안겨주는 업기적 설치 조

작가 본론 모형 잘라붙인 ‘컷오프’ 땡겨 잘린 백설공주 머리통 조각... 5년 전 못지않은 그로테스크한 풍경

인간 욕망의 극단까지 까발리며 동화·우화에 숨겨졌던 폭력성 고발

각을 내놓으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망가진 백설공주와 난쟁이 조형물을 주로 내놓은 2012년의 첫 국내 개인전과 올해 전시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 자신의 몸을 떼낸 뒤 실리콘을 입힌 조형물을 해체한 작업과 이를 다시 드로잉과 청색, 회색조의 페인팅으로 묘사한 작업들이 등장했다. 20세기 초 전위사조 다다이즘의 주역이었던 프랑스 작가 프랑시스 피카비아(1879~1953)의 회화 ‘여인과 우상’을 모티프로 삼은 조형물 ‘피카비아 아이돌(우상)’ 연작도 다수 등장하는데, 피카비아 회화에 등장하는 우상을 실리콘 조형물로 뜨면서 이 조형물의 빼대인 코어를 다시금 원자처럼 재창조한 작업들이다.

“우연히 발견한 코어 자체의 예측불가능한 추상성과 근원으로 돌아가는 환원의 힘에 매혹됐다”고 작가는 말한다. 코어를 작품으로 만들고, 그 코어의 속 빼대인 또다른 코어를 다시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거듭되면서 피카비아의 우상은 형태가 서서히 축소되고 망가지간다. 이런 잔혹한 망가짐의 미학이 피카비아의 작품과 자신의 몸을 속삼아 확대된 셈이다.

매카시는 자기 몸을 난도질해 조각으로 뜨고 그림으로 만든 신작의 ‘재활용’에 대해 “무엇을 의도하고 작업한 것은 아니며, 몸을 해체하고 이리저리 접붙이다 보니 세계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몸은 60년대 행위예술할 때부터 친숙한 소재였다. 이번 신작에는 아마도 나이 들어 쇠잔해지는 내 몸의 감각과 10년 안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절실한 느낌 같은 것을 담았다.”

16세기 서구 화단에서 종말적 풍경을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으로 담았던 브뤼엘이나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을 가장 그와 한 현대적인 버전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카시의 작품들이다. 보스와 브뤼엘이 인간의 죄악이 빚어낸 상상된 괴물들을 화폭에 그리듯 현실에서 적시하기 힘든 인간 욕망의 극단적인 면모들을 작가는 보여준다. 태생적으로 개념미술, 퍼포먼스 작가인 까닭에 출품작들은 조각이지만, 조각적 세계의 전통 미학과는 다르게 속도도 전혀 다르게 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좋겠다.

작가는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수학했다. 1960년대부터 퍼포먼스와 영상작업을 거듭하며 미국식 자본주의 대중문화와 상업성을 그로테스크한 성격인 코드로 풍자하는 작업을 해왔다.

글 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국제갤러리 K3전시장에 나온 ‘컷오프’ 연작 중 일부. 작가의 앞몸 모형을 마구 절단한 뒤 접붙인 그로테스크한 작업들이다. 오른쪽은 작품을 설명 중인 폴 매카시.